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Affect the Us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토오호쿠대학(東北大) 사회계층과 불평등연구교육센터
COE 연구원 김 지 경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Tohoku University
COE Fellow : Ji Kyung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검토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s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1,171 household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ed to unemployed mother's households, employed mother's households tended to use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Second, with rising household income, the use of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decreased. Third, the expenditure was much larger for the households with a large income than those with a small income.

주제어(Key Words): 교육 및 보육시설(education and care center), 이용(use), 지출비용(expenditure), 한국노동패널(KLIPS)

Corresponding Author: Ji Kyung Kim, 601 COE Research Room,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Letters, Tohoku University, Aoba-ku, Kawauchi, Sendai 980-8576, JAPAN Tel: 81-090-2844-7594
Fax: 81-22-795-6011 E-mail: jkkim@kli.re.kr

* 본 연구는 토호쿠대(東北大) 『사회계층과 불평등연구교육센터』로부터 21세기 COE프로그램의 연구지원금으로 게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at Tohoku University under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1. 서론

산업사회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증가와 가족문화 및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은 자녀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한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욕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정책을 추진시켜왔는데, 그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육시설수의 빠른 증가이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2년과 2003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03년 12월 현재 24,142개소(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www.educare.or.kr>)로 5.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자녀양육서비스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킬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자녀출산과, 양육시기인 30-34세에 낮아지며, 육아부담이 여성 취업의 가장 주된 장애요인(통계청, 2002)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서문희, 2002)는 보육시설 수요자의 의견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가계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여 년간 국공립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 중심이 된 보육시장의 성장과 확대는 보육시장구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2003년 12월 현재 전체 24,124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각각 1,329개소(5.5%)와 236개소(1.0%)에 불과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3,644개소(56.5%)와 8,933개소(3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지원

을 받는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시설(1,632개소:6.7%)의 비율을 국·공립시설과 함께 공공보육시설로 묶어 구분하더라도 공공보육시설과 민간시설비율의 불균형(12.2%: 87.8%)은 심각한 수준이다(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www.educare.or.kr>). 이처럼 민간개인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정부가 보육시설확충 사업을 전개하면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용자사업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변용찬, 2002).

정부는 교육 및 보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료 등의 형태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보육시설은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지역에 우선 설립되어야 하고 2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의 전담보육, 시간제보육이나 야간연장, 24시간반, 휴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민간보육시설관련자들로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니, 상류층 2.0%, 중산층 44.3%, 중하류층 32.4%, 저소득층 21.3%(임유경, 2002)로 과반수에 가까운 아동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국·공립시설의 최소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받아야 할 가계가 적지 않은 보육비를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주거지와 근접한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선택하여 이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시설을 통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지원대상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향후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아동에게 직접지원 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다.

비단 저소득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용료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보육시장에 절대적으로 많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적게는 1-2가지, 많게는 7가지 이상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특별프로그램(영어, 미술, 체육 등)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 2003;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1)을 고려하면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실제 가계의 지출비용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준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보육비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만 가장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가 보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계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지출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부담의 정도도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학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교육 및 보육의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기 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동보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상당 비율이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학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시설의 이용정도를 파악한다면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보육현황을 파악하거나 현실적인 보육수요를 예측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와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층의 아동들도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장치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 보육'을 논의 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을 살펴보고,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하여 가계가 월평균 지

출하는 지출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가계의 보육비 지출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자녀 보육비 지원 수준과 관련된 현 정책을 보완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가계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하여 지원하는 지원비는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국공립시설인지의 여부와 가계의 소득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도 달라진다. 즉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시설에만 지원되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가계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국가지원 혜택이 없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또 취학직전 5세 아동에 대한 이용료 전액지원은 최저생계비 수혜대상이 되는 절대빈곤층 가구의 자녀와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취업모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영유아보육법 제 28조;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 2003;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 교육인적자원부, 2002; 보건복지부, 2002). 이와 같이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상태 등을 비롯한 지원 대상아동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에 주된 영향요인이 된다.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 조애저, 2000; 서문희 외, 2000; Pic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에서도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가구의 형태와 지역,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의 특징 중 가구의 형태는 가족 내의 조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가족 내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비핵가족인 경우가 더 높을 것이므로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가족 내의 조력자가 없는 핵가족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68.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57.1%로 가장 낮으며, 서울과 서울 이외지역의 차이는 상당하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지경, 2004b). 또 동부에 비해 읍 면 거주 가구의 자녀의 이용률이 높고(서문희, 2001), 특히 대도시와 중 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유치원의 이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02; 나정 외, 2000). 이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증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및 보육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였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지경, 2004b). 가구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대한 결과도 연구마다 서로 상이하게 보고 된 바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이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350만원이상 가구에서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보육시설의 이용률보다 높으며 학원의 이용은 소득수준과 비례한다는 연구결과(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가 있는 반면, 학원의 이용은 대체로 유치원의 이용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특히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김지경, 2004a)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특징 중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서구와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 있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Piecy, et.al, 1999), 비공식보육 이용자 중에서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per,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용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보육시설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을 때 자녀의 시설이용률이 높고 이용시간이 길며(서문희, 2001; 나정 외, 2000; 서문희 외 2000), 어머니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시설 이용률이 높다(서문희 외, 2000). 결국 가정 내 조력자가 없으며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분석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5차년도(2002년) 자료이다. KLIPS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모든 개별자녀마다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은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외, ③학습지, ④방과 후 교내보충,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

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일반유치원, ⑫ 기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해당연령의 모든 자녀들이 ①~⑫의 교육 및 보육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자녀마다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또는 보육내용이 무엇이고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는가에 대해 최대 다섯 종류까지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자녀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자녀당 월평균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 시설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웠던 교육 및 보육시설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 비용을 자녀별 지출금액의 총합을 통하여 실제적인 가계의 지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분석에서는 KLIPS 5차년도(2002년)에 조사된 4,298가구 중·초등학교 3학년(만 9세)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과의와 학습지, 그리고 방과 후 교내보충을 제외한 ①학원,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정규유치원, ⑫기타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으로 정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자녀수

(B) 대비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수(A)의 비율(A/B)을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로 산출하였다. 또한 각 자녀들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금액의 총 합을 '가계의 지출비용'으로 산출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을 가구특징 및 어머니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이용률 및 가구 총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이나 일정한 영역에서는 관측될 수 없어 제한된(예를 들어 0) 값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적 종속변수모델(limited dependent variables model) 가운데 하나이다(Maddala, 1992).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의 종속변수 Y는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비용'이다.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에서는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1'인 가구들도 포함되어 분석된다. 본 연

<표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설 명	변 수 값
독립변수	가 변 수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수	2명 이상(1명:0)
		어머니학력	전문대졸이상:1(고졸이하:0)
		어머니취업여부	취업:1(미취업:0)
		거주지역	서울:1(서울외의 지역:0)
		가족형태	비핵가족:1(핵가족:0)
	연속변수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가구원수	총 가구원 수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값	
종속변수	이 용 률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대비(B)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녀수(A)의 비율
	지출비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 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자녀별 지출비용의 총 합산 금액

구의 전체 분석대상 1,171(100.0%)가구 중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797 (68.1%)이고,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가구는 384 (39.1%)로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 비용에 있어서 '0(zero)'의 값을 갖는 가구는 39.1%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왼쪽절단(left-censored)된 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_i = \beta_0 + \beta_1 X_i + \mu_i \quad \text{if } Y_i^* > 0 \\ = 0 \quad \text{if } Y_i^* \leq 0$$

즉 표식에서 $Y_i^* > 0$ 경우는 가구의 교육 및 보육 시설이용률과 지출비용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관찰 가능한 경우이고, $Y_i^* \leq 0$ 의 경우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없어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없는 절단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특징이 반영되었는데, 어머니의 특징 중 취업 모의 월평균소득은 가구총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석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구 및 어머니특징에 따른 이용률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은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함께 가구특징과 어머니특징으로 나뉘어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 특징에 따른 이용률 차이를 중심으로 기초분석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표 2> 가구특징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가구, %)

특 성	범 주	사례수(비율)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률	F-검정통계량
초등3이하 자녀수	1명	661(56.5)	56.3	8.52***
	2명	471(40.2)	67.4	
	3명	39(3.3)	60.7	
가구원수	3명 이하	295(25.2)	39.3	39.33***
	4명	568(48.5)	72.6	
	5명	184(15.7)	61.9	
	6명 이상	124(10.6)	56.9	
가구 내 취업자수	1명	66(5.6)	35.6	11.34***
	2명	926(79.1)	62.6	
	3명	179(15.3)	61.1	
가족구성	핵 가족	988(84.4)	60.9	0.31
	비핵가족	183(15.6)	60.6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17(10.0)	47.6	8.43***
	100-200만원 미만	413(35.3)	55.6	
	200-300만원 미만	336(28.7)	62.5	
	300-500만원 미만	215(18.3)	70.5	
	500만원 이상	90(7.7)	73.1	
거주지역	서울	221(18.9)	68.6	3.02*
	경기	259(22.1)	60.5	
	광역시	358(30.6)	59.9	
	도 지역	333(28.4)	57.1	
	전 체	1,171(100.0)	60.9	

*p< .05, **p<.01, ***p<.001(이하 표동일).

〈표 3〉 어머니특징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가구, %)

특 성	범 주	사례수(비율)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률	F-검정통계량
연 령	만30세 미만	267(23.4)	33.2	72.67***
	만30세~39세	763(66.8)	70.6	
	만40세 이상	113(9.8)	61.9	
교육수준	고졸 미만	93(8.1)	58.6	4.77**
	고 졸	676(59.1)	65.0	
	전문대졸	165(14.4)	53.7	
	대졸 이상	209(18.4)	54.7	
취업상태	취 업	449(39.2)	73.2	29.24***
	미 취 업	694(60.8)	53.0	
취업모 월평균 근로소득 ¹⁾	100만원 미만	177(39.4)	75.0	11.35***
	100-200만원 미만	222(49.4)	72.4	
	200만원 이상	50(11.2)	71.0	
전 체		1,143(100.0) ²⁾	61.0	

1) 취업상태에 있는 449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이하 표동일).

2)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 제외(이하 표동일).

우선, 〈표 2〉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률이 67.4%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72.6%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가구 내 취업자 수로 구분하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자 수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도 61.1%로 높아 취업자 수가 두 명인 가구와 세 명인 가구의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한 명인 가구의 이용률은 35.6%로 취업자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매우 낮다.

가구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가계의 근로소득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월평균 가구총소득에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에 따른 이용률은 어떠한가? 5가지 범주로 소득수준을 나누어 이용률을 제시한 가구소득수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이용률은 47.6%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가구의 이용률

은 73.1%로 그 차이가 25.5%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68.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57.1%로 가장 낮으며, 서울과 서울 이외지역의 차이는 상당하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가 제외된 1,143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률을 비교하였다. 먼저 세 범주로 구분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이용률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61.9%, 20대 33.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고졸학력인 가구의 이용률이 65.0%로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고졸이하의 경우가 전문대졸이상의 경우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선행연구들(서문희, 2001; 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 2000)에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 분석에서도 취업한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이용률(73.2%)이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이용률

(53.0%)에 비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취업한 어머니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취업한 어머니(449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세 범주로 나누어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5.0%,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2.4%, 200만원이상인 가구의 이용률 71.0%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 및 어머니특징에 따른 지출비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 중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797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의 정도를 가구특징과 어머니특징, 소득수

준별, 그리고 소득수준대비 지출금액의 비율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는 가구특징별 가구의 월평균 교육 및 보육비지출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월평균 26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23만원의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내 취업자 수로 구분하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22만 1천원으로 가구 내 취업자가 한 명인 가구와의 차이는 월평균 7만원 정도이다.

가구소득수준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6만 5천원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가구의 지출금액은 27만 2천원으로 그 차이가 20만 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 지출금액을

〈표 4〉 가구특징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비 지출금액

(단위 : 가구, %, 만원)

특 성	범 주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금액	F-검정통계량
초등 3이하 자녀수	1명	372(46.7)	16.7	28.10***
	2명	392(49.2)	26.3	
	3명	33(4.1)	24.9	
가구원수	3명 이하	117(14.7)	19.3	26.69***
	4명	469(58.9)	23.0	
	5명	127(15.9)	20.1	
	6명 이상	84(10.5)	20.1	
가구 내 취업자수	1명	24(3.0)	15.0	9.78***
	2명	654(82.1)	22.1	
	3명	119(14.9)	20.9	
가족구성	핵 가족	674(84.6)	22.0	0.97
	비핵가족	123(15.4)	20.1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58(7.3)	6.5	27.67***
	100-200만원 미만	262(32.9)	10.9	
	200-300만원 미만	241(30.2)	15.7	
	300-500만원 미만	165(20.7)	20.0	
	500만원 이상	71(8.9)	27.2	
거주지역	서울	163(20.5)	25.9	9.79***
	경기	179(22.5)	24.8	
	광역시	245(30.7)	19.2	
	도 지역	210(26.3)	18.6	
전 체		797(100.0)		21.7

〈표 5〉 어머니특징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비 지출금액 (단위 : 가구, %, 만원)

특 성	범 주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금액	F-검정통계량
연 령	만30세 미만	109(14.0)	182	40.36***
	만30세 ~39세	599(76.7)	231	
	만40세 이상	73(9.3)	167	
교육수준	고졸 미만	59(7.6)	13.3	6.96***
	고 졸	500(64.0)	19.5	
	전문대졸	97(12.4)	26.6	
	대졸 이상	125(16.0)	31.1	
취업상태	취 업	347(44.4)	22.6	8.17***
	미 취 업	434(55.6)	21.1	
취업모 월평균 근로소득 ²⁾	100만원 미만	141(40.6)	20.5	6.62**
	100-200만원 미만	170(49.0)	24.7	
	200만원 이상	36(10.4)	29.5	
전 체		781(100.0) ¹⁾	21.8	

1) 797가구 중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16가구 제외.

2) 347명의 취업모의 근로소득.

비교해보면 서울지역 거주가구의 지출금액이 25만 9천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도(24만 8천원)의 차이는 많지 않으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률에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그 외지역의 차이가 많았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표 5〉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16가구가 제외된 781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취업한 어머니의 근로소득에 따른 지출금액을 비교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별 가구의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지출이 23만 1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나누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은 많아져 고졸미만인 가구의 지출금액 13만 3천원인데 비해 대졸이상인 가구의 지출금액은 31만 1천원으로 17만 8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취업모 가구의 지출금액이 22만 6천원이고 미취업모 가구의 지출금액이 21만 1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어머니들 가운데에서도 근로소득수준이 높은 취업모 가

구의 지출금액이 많아 월평균 200만원이상 근로소득의 취업모가구는 29만 5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100만원미만 근로소득의 취업모 가구는 20만 5천원을 지출하여 월평균 9만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3.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 및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과 지출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가구 및 어머니의 특징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1)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6〉은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을 종속변수로 한 Censored Normal Regression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기초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하고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의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의 어머니 특징이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표 6〉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 수		0.093(0.066)
Scale		0.016(0.005)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632(0.033)***
어머니교육수준(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032(0.009)**
엄마취업여부(미취업)	취 업	0.115(0.020)***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 울	0.013(0.006)*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009(0.015)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01(0.001)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53(0.007)***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38(0.006)***
N		1,143
Log Likelihood		-167.45

*: $p < .05$, **: $p < .01$, ***: $p < .001$

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가 2명이상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시설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변수로 분석된 거주지역에 있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의 총 가구원수는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 가구에 가족원이 많다면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력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자녀양육에 있어 가구 내 조력자 또는 대체인력이 되는 가족원은 대부분 자녀의 조모(서문희 외, 2002)이므로 가구원수의 효과를 가족 내 대체인력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 가구소득은 이용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및 교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친인척을 비롯한 조력자가 있거나 시설이용에 따르는 지출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되는 가구의 경우 등은 시설보육을 자녀양육서비스로서 차선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들이 아직까지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아 시설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특히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시설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누수 없이 효과적으로 가계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일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보육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가 전문대졸이상인 가구가 고졸이하인 가구에 비해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이 높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이용을 선호하고 이용률도 높다는 미국의 선행연구(Piecy, et. al, 1999; Casper, 1995)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육시장이 상당히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 연유가 같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률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교육 및 보육시설의 기능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수용하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교육과 또래친구 만들기로 인한 사회성발달 등의 교육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기대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가 미취업한 가구에 비해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시설을 통한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영유아법 제 28조에 취업모가구의 자녀들이 공공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가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이 긴 취업모가구의 자녀를 배제한다거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보육시설 중 취업모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학한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구의 총 지출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Censored Normal Regression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소득의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가 2명이상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지출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지출비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률의 모델분석에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녀1명인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시설을 더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시설을 통하여 자녀를 보육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직접 보육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직접 보육하는 가구가 대체로 자녀수가 많은 가구라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경제적 부담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만 5세아를 중심으로 한 무상교육 및 보

<표 7> 가계의 교육 및 보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 수		2.483(0.185)***
Scale		0.536(0.135)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92(0.042)*
어머니교육수준(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0.101(0.044)**
엄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054(0.039)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29(0.047)**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024(0.074)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05(0.004)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27(0.024)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53(0.187)**
N		1,143
Log Likelihood		-817.56

*: $p < .05$, **: $p < .01$, ***: $p < .001$

육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이제까지 취약계층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에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육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보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률분석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지출금액이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로 구성된 보육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20%로 여타지역 50%보다 적어(나정 외, 2003), 보육료단가가 서울 이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소득변수는 이용률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지출비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일단 이용을 한다면 그 가구들 가운데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보육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가 고졸이하인 가구에 비해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가구 및 어머니의 특징이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다는 결과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취업모 가계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가계의 지출비용수준이 21만 7천원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해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이 가계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계의 보육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의 수준과 가계의 실제 지출수준과의 격차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부가적인 가계의 지출비용의 규모가 함께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가계에 지원할 보육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울지역의 시설이용률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의 민간시설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시설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용환경의 수준이 보육체계가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과 같이 고품질 균질화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장이 되지 않고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심신이 보호되고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인 환경에서 보호되고 교육되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 비용을 전적으로 가계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시설의 프로

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적절한 지원수준이 결정되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육시설의 환경과 내용이 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에서 표준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지원을 통해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고 모든 자녀에게 건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의 육아지원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의 이용이 낮다는 본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제까지 저소득층 또는 취업여성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으로 최근 정부는 만 5세 아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올 해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해소와 함께 정부가 보편적인 접근으로 자녀양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고소득의 가구 또는 고소득 전문직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도 공공성이 보장된 보육시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보편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폭넓어진 대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도 요구된다. 예컨대 미취업여성들이 비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이나 장시간 근무하는 취업여성들을 위한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설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어느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통계연보.
- 김승권, 조애저(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경(2004a).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_____(2004b).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과 경제적 부담. *KLIPS Research Brief No. 10*, 한국노동연구원.
- 나 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나 정, 장영숙, 문무경(2000).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 변용찬(2002).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보육수요. *도시문제*, 37(402), 22-34.
- 보건복지부(2002). 보건통계연보.
- 서문희(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21-265.
- _____(2002). 보육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도시문제*, 37(402), 35-44.
-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자격관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교육인적자원부.
- 임유경(2002). 보육사업에서 공보육실현의 의미. *도시문제*, 37(402), 58-68.
-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http://educare.or.kr>

- _____.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현황.
<http://educare.or.kr>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 Atkinson, A. (1994). Rural and Urban Families's use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3(1), 16-22.
- Butler, J. N. Brigham, & S. Schultheiss (1991). *No Place like home: a Study of subsidized in-home and relatives child day care*. Philadelphia, PA: Rosenblum and Associations.
- Casper L. M. (1995). What does it cost to mind our preschooler. U.S. Bureau of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Report*, 52.
- Hofferth, W. B., & Kisker, E. (1991).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Care in 1990*, NAEYC.
- Maddala, G. S. (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
- NICHD (1997). *Poverty and Pattern of Child Care*. Russel Asge Foundation.
- OECD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tting the most from the investment*. Education Policy Analysis.
- Piecy, J. B., A. Collins, & J. L. Kreader (1999). *Patterns and Growth of Child Care Voucher Use by Families Connected to Cash Assistance in Illinois and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2004년 11월 4일 접수, 2005년 3월 16일 채택)